

“친구들을 지켜주세요 … SOS”

여고생 동반자살 후 이 학교에선 무슨 일이…

평소 도와주지 못한 죄책감에 심각한 트라우마

교육청·학교·지역사회 연계한 ‘상담치료’ 절실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동반자살 사건’(광주일보 6월 5일 6면)과 관련, 같은 학교 친구들이 자살한 동료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심각한 ‘트라우마’(심리적 외상)를 겪고 있다.

일부 학생은 친구의 자살을 막지 못한 자책감과 충격으로 자살까지 시도하는가 하면,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과로워하며 심각한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는 학생들도 수십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교는 담임교사와 상담 교사를 동원해 학생들과 면담을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극도로 불안해하는 학생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상담 치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